

어느 아버지의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믿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느 하나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게 하시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기에 아름다운 세상이라 생각하게 하시고 이를 보존하고 더욱 아름답게 가꾸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가 귀하여서 남의 자녀도 귀하게 대하듯 자녀들도 나의 부모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모도 공경하게 하소서.

하나님! 거리에 CCTV가 말없이 범죄자를 감시하듯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감시 아래 살고 있음을 항상 깨닫게 하시어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린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주시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과도 조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는 아름다운 무지개는 비를 동반한다는 정조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중요하고 옳다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보잘 것 없고 작은 것일 지라도 실천하는 행동이 더 귀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매일 매일 기도하듯 하루, 하루를 반성하며 내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을 소중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물질로 성공했다거나 하고 싶은 것을 달성했다하여 성공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선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과도 조화롭게 더불어 사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도 성공된 삶이란 생각을 하게 하소서.

〈양병택 집사〉

행복이 묻어나는 하루

- 5월 17일 늘푸른 대학 청남대 나들이 중에서

초록과 함께 늘푸른 대학 어르신들과 함께 5월 17일(화) 충청북도 청남대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즐거움 속에... 좋은 날들, 행복으로 묻어난 좋은 날이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4대의 버스로 막힘이 없는 고속도로를 2시간 달려 청남대에 도착하니 대청호의 물빛과 더불어 정돈된 나무들의 초록이 더욱 푸르다 못해 푸른비가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점심에 고추장 삼겹살과 단호박밥을 먹으며 꽃을 바라보면서도, 흘러가는 구름과 바람을 보면서도 열어둔 창으로 바람결이 들어와 귤전에 속삭이곤 합니다. “봄이야! 맘껏 환해지렴.” “이제 곧 초록 짙은 여름의 길로도 데려다 줄게” 시야에 초록을 가득 담으면서 시골길을 달리는 차창 속 햇살이 따가웠던 걸 보면 이제 곧 초록맛이도 함께 가야겠지요. ^^ 길가에 푸르름을 보며 어르신들은 “오늘 밤에는 하늘을 나르는 꿈을 꿀 것 같네요. 이렇게 맑은 공기 속에 정말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뵈는 어르신들 푸른 하늘 초록의 햇빛 그 마음들 속에 사시며 연하디 연한 마음들과 함께 하시니 아마도 늙으실 사이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루 동안의 즐거운 소풍 속에서 작은 사랑 하나라도 사소한 따뜻함마저도 멋지게 그려 보셨는지요. 지금 우리들 곁에 와 있는 현실과 건강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푸른 대학에서의 어르신들과의 만남 어찌면 오래 전부터 알았던 것만 같은 마치 어머니님과 아버지님과 같이 우리들 모두 좋아하는 소중한 인연과 행복이 묻어나는 하루를 초록의 빛과 함께 오래 간직 하고 싶습니다. 가을 나들이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성경_ 한자로 풀어보기

和睦(화목)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밝고 나라가 안정되는데 건전한 가정의 필수요소는 단연 和睦(화목)일 것이다. 和睦(화목)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뜻이 맞고 정다움」이라 定意(정의)하였는데 왜 그 렇게 되는지 破字(파자)해보자.

★和(화목할 화)는 곡식, 쌀을 의미하는 禾(벼 화)에 말하다, 먹는다는 뜻이 있는 口(입 구)가 결합 되었으므로 「벼를 수확하여 함께 먹으니 화목하다」가 된다.

★睦(화목할 목)은 본다는 의미의 目(눈 목)과 아래로 굽은 모양의 勹(언덕 룩)으로 구성되어 「눈 꼬리가 언덕처럼 처지도록 웃으며 바라보니 화목하다」로 풀이할 수 있다. 이처럼 먹을 것이 있고 서로 웃으며 바라보면 당연히 화목하지 않겠는가?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영혼의 자발적 제사로써 화해, 일치, 친교, 번영, 행복의 의미가 있으며 제물의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과 獻祭者(헌제자)가 함께 먹어 관계회복을 도모하는 제사이다.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교회소식 이모저모

- 주방봉사 참석 현황 통계



주방부에서는 2010년 8월부터 겨자 씨들의 주방봉사 참석 현황을 통계 내고 있습니다. 봉사한 겨자씨 한분 한분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 나기를 바라며 이러한 귀한 참여가 계속 생겨 넉넉한 마음으로 나눔하는 주방 겨자씨 봉사가 이어져서 했

살이 가득해지고 꽃들은 피어나는 봄의 뜨락에 환한 웃음으로 찾아와 주기를, 그리 하여 봄의 소리 가득한 뜨락에서 꽃들의 합창을 들으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료인 총동원 주일



주님의 교회 의료인 총동원주일을 맞아서 5월8일 중예배실 앞 응급진료실앞에서 많은 의료인이 참여 하였습니다

- 4여전도회 야외예배



5월 3일 4여전도회 월례회를 유성훈 목사님을 모시고 야외예배로 드렸습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사랑의 귀한 나눔을 통해 4여전도회 회원 모두가 새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 5여전도회 양화진 탐방



만개한 아름다운 꽃들이 마음을 설레게 해 주는 5월의 둘째 목요일, 5여전도회에서는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역으로 친교모임을 다녀왔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 번 가

보아야 할 뜻깊은 섭리가 서려 있는 선교사 묘원이었습니다.

함글함글 기사를 보내주세요.

hamletter@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에서 검토 후 실어 드립니다.

문의: 홍기협 집사 T.010.3779.0926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오늘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_ 히 10 : 24 - 25

통 권 _ 제 285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5월 22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가정의 회복, 주님 주신 소명 _ 위기의 가정 극복 위한 거룩한 사역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일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입니다. 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새터민이나 다문화가정과 같은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함글함글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의 위기를 돌아보고 회복을 위한 주님의 교회의 여러 사역을 탐방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가정의 붕괴를 보여주는 다양한 사회 지표들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이지만, 5월에 들리는 소식은 오히려 가정의 붕괴가 가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식이 부모를 폭행했다는 소식이나, 부모가 자식과 재산 싸움을 벌였다는 보도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표는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다. 최근 한림대 외대 김동현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 자살이 지난 20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노인 자살률 급증에 대해 핵가족화 등 가족 해체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이혼이 무려 12만 4천 건으로, 2008년에 비해서 6.4%가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이혼율이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였다. 시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수직적 부부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청소년 범죄의 동향 역시 심상치 않게 변화하고 있다.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면서, 범죄의 양상은 성인을 따라 하는 경향이 보임에 따라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인 가정도 상황 다르지 않아

“최근 들어 기독교인 가정의 이혼율도 일반 사회와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님의 교회 광광송 목사의 말이다. 이혼 가정의 증가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의 증가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또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새터민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활 환경, 문화, 언어의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하기 어렵고, 따라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가정들이다. 전통적 윤리 의식의 붕괴와 핵가족화 양상, 가족의 해체, 만혼의 경향 등은 건강한 가정의 붕괴를 유발하고, 결국 개인의 소외와 일탈을 유도하기 마련이다.

가정, 하나님 나라의 초석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초석임을 되새겨 볼 때, 이제 ‘가정의 회복’은 교회 가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소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동안 가정의 회복을 위한 많은 노력이 기독교 안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 갈등이 벌어진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와 같이 사후 갈등 치료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주님의교회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키워나가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혼 형제 자매들의 만남을 위한 ‘싱글매칭학교’, 예비 신랑 신부를 위한 ‘결혼예비학교’, 가정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아버지학교’ 등이 그것이다.

“2009년에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간절히 혼인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어느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결혼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모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싱글매칭 학교’는 공 목사에 의해 2009년 가을에 이렇게 탄생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돕고자 시작한 ‘싱글 매칭 학

교’는 자기소개, 검단산 등반, 포크댄스, 요리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의 만남을 통해 20번의 교제 기회를 제공한다. 본 교회를 포함 80여 교회에서 자매 120여 명, 형제 40여 명씩 신청하는데,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20쌍을 선발하고 있다. 지난 5기에는 12쌍이 매칭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지난 5기까지 3쌍이 결혼에 이르렀고, 6쌍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중이다. 연 3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23일 제6기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교계에서도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모와 함께 커플 매니저 역할을 맡아 매달 사후 서비스까지 도맡아 진행하고 있는 광광송 목사의 자부심 가득한 첨언이다.

미혼을 위한 싱글 매칭 학교,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예비 학교

한편,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커플을 위

< 2면에 계속... >

주간 목회력

<12단계 (9단계) 개강안내>
수요반 (5.25) / 토요반 (6.4)
<교인사진촬영 및 사진교제>
5.22,29(주일) 1~4부 예배시 / 1층 야외로비

<교구 수련회> 5.27(금)~28(토) / 2,5,8교구
<비전트립 케냐 팀원 추가모집> 7.3(주일)~12(화) / 9박10일
<해외선교비전트립 교육 안내> 5.23(월) 오후7:30 / 소매배실
<제6기 싱글매칭학교> 신청마감 - 5.25(수) / 교역자실

15사단 신병 세례식

-장로회와 20plus 군 선교 (훈련병 진중 세례식과 은혜 찬양)-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군대는 힘겨운 시기입니다. 군 선교는 이러한 청년 형제들에게 육체적-정서적 쉼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진정한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20Plus 청년공동체의 새벽이슬 찬양팀과 브릿지 합창단은 5월 14일 군선교팀과 함께 15사단(강원도 화천군 소재) 훈련병 진중세례식에 참석하여, 찬양을 통해 이들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새벽이슬 찬양팀과 브릿지 합창단은 320여명의 국군장병들과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들이 이번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이후 군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길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엄주청 장로님의 기도 후 유기영 목사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통해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함께할 젊은이가 되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한명 한명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례식과 위문공연을 통해 이들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귀하게 자라고 열매 맺게 되길 소망합니다.

〈 20Plus 이정민 전도사 〉

복된 가정, 자녀를 위한 부모의 신앙교육

- + 가정에서 부모님의 찬송소리와 기도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안고 축복해 주십시오.
- + 자녀와 헤어져 있을때 부모가 늘 기도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가정을 벗어난 자녀의 생활을 부모는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부모의 기도소리를 자녀는 잊지 않습니다.
- + 우리 집 현관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향해 출발하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잠시 축복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소리를 기억하며 하루를 든든히 살 것입니다.
- + 그 달의 필요한 말씀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냉장고를 열면서, 책상 위에서, 침대에서, 현관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만나면서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 + 주일을 귀히 여기고 주일은 예배하는 날임을 분명히 훈련해 주십시오. 주일은 평생 방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자녀가 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훈련해 주십시오.
- + 가정은 운명공동체입니다.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기쁨과 아픔을 공동으로 나누십시오. 자녀도 부모와 가정의 희노애락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 + 부모님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신앙적인 메시지를 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은혜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거야”
- + 부모님의 자금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아이의 일생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펼쳐질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 + 자녀들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의 기회를 만들고 다른 가족과도 어울리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님과 여행하며 나는 행복한 시간을 기억하고 그들도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주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 + 자녀는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속에서 당당하게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기둥들임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자주 전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미래는 아이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세우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의 미래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 + 평생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함을 사명감을 갖고 자주 알려 주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 144:15)

〈 주님의교회 교육목회원 _ 박해성 목사 〉

한 결혼예비학교’는 지난 5월에 6기를 마쳤다. ‘첫눈에 반해서 쿵짝지가 씌워져’ 결혼을 결심하는 많은 커플의 경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많은 결혼생활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기 쉽고,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보면 파국에 이를 가능성이 많다. ‘결혼예비학교’는 주님 말씀 안에서 보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결혼생활에 이르도록 미리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8년 김현령 목사가 시작했으며 2009년 공광승 목사가 이어서 사역하고 있다. 연 2회, 4주간의 과정을 통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나누고, 행복한 부부의 성, 성경적 결혼 건축, 성격 유형으로 본 부부 갈등의 이해, 부부의 건강 과 같은 과목을 이수한

다. 기독 상담 전문가와 유명 병원의 전문의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한다. 마지막 코스인 세족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커플이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후문이다. 보통 한 기에 7-8커플이 참여하며, 현재까지 5기가 진행되는 동안 30여 커플이 ‘결혼예비학교’를 수료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학교’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있다. “아버지들이여,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라는 올해의 프레이즈에 맞추어,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이라는 주제

로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마지막 프로그램인 세족식에서, 남편은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인들은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발을 씻기는 감격과 함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함께 하는 눈물겨운 장면들을 연출하곤 한다. “이밖에도 가정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는 어머니들을 위한 어머니학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을 위한 부부학교, 싱글 매칭

학교는 초혼을 위한 프로그램이므로 재혼 희망자를 위해 따로 운영하는 재혼 매칭 학교 등의 프로그램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대학원에서 가정 사역을 전공한 공광승 목사의 전언이다.

〈 장경식 기자 avecarc@gmail.com 〉

〈 가정의 회복 위해 주님의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

프로그램	주 기	대 상	코 스
싱글 매칭 학교	연 3 회	30세 이상 초혼 남녀	4 주
결혼 예비 학교	연 2 회	결혼 앞둔 예비 부부	4 주
아버지 학교	연 3 회	아버지	4 주

* 문의 : 공광승 목사 (010-4571-8707)

20 Plus - 20대 청년들이 모인 예배, 양육, 사역 공동체



1. VISION: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엡4:3)

20 Plus 청년부의 비전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과정은 첫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둘째 말씀으로 양육 받음으로, 셋째, 섬김의 사역(삶)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0Plus에 오는 모든 청년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며, 잘짜여진 교육과정을 통해 양육받게 되며, 양육받은 것을 가지고 삶으로 실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여정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2. 20 Plus에 오시면 - 20Plus의 새신자 과정

20 Plus 오시면 첫 번째로 하게 되는 것은 신앙고백의 점검입니다. 초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나만의 신앙고백을 갖는 것이며, 기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는 이단과 사이비가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Plus의 새신자 과정은 사도신경교제를 자체 제작하여 교육할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사도신경을 새

롭게 작성하고 고백하는데 까지 나아갑니다.

3. 20 plus의 양육

20 Plus는 '20대'와 '+α' 두 개념의 결합으로, 20이라는 청년들에게 +α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가령, 1-2월은 20+Vision의 주제로, 3-4월은 20+Passion의 주제로 이어져 왔으며, 5월-8월은 20+믿음, 소망, 사랑(20+Faith, 20+Hope, 20+Agape)의 주제로 설교와 겨자씨 셀모임 양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매주 예배후 27개의 겨자씨 소그룹으로 나누어져 성경공부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겨자씨 리더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교육과 훈련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4. 예비리더교육 LETS (Leadership Education Training School)

20 Plus를 이끌어 가는 것은 교역자님들과 청년 리더들입니다.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는 청년들이 진정한 20 Plus의

회원이자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를 만나 소그룹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수준은 곧 리더의 수준에 달려있기에 리더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20Plus는 올 해 60명의 리더양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주님의 교회의 미래 20 Plus

청년들은 주님의 교회 교회학교의 교사로, 성가대로 섬기기도 하는데 청년들의 성장과 성숙은 자신만을 아름답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교회 전체를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결국에는 20 Plus의 비전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른 온전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교역자〉 정재상 목사, 서재욱, 이정민 전도사
조원호 장로, 조명희, 김현중 권사, 손영익, 박현욱 집사

〈모임 시간 & 장소〉

예배 - 매주 주일 오후 1시30 중예배실

새벽중보기도 - 매일 오전 6:15-7:00 사랑나무실

예비리더교육 - 매주 토요일 오전 10:00-12:00

겨자씨리더교육 - 매주 토요일 오후 3:00-5:00

(문의 : 안영후 새가족팀장 010-7119-1067)

〈클럽 _ club.cyworld.com/junimyouth〉

30 Plus 를 소개합니다!

30plus를 소개합니다!

직장, 연애, 결혼, 육아... 오늘을 살아가는 30대의 가장 큰 고민이자 떨 수 없는 삶의 일부들입니다. 주님의교회 30plus는 이러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도록 돕고자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30plus는 30대 미혼(싱글)과 기혼(커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부 예배(2시)를 함께 드리고 예배 후 3층 밀알실에서 모여 전체모임을 갖고 겨자씨모임을 진행합니다.



신앙공동체

‘하루’는 30plus에서 격월로 발행되는 공동체 목상집입니다. 매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성경 말씀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묵상하게 됩니다. 목상집을 통해 개인은 삶 속에서 우리는 다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가 담겨 있

습니다. 중보기도 제목들, 결혼소식, 생일, 결혼기념일, 인물탐방, 영화감상문, 나누고 싶은 글이나 시 등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꾸미는 소식지의 역할을 합니다. 목상집을 통해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더 생기 있고 하나되는 가족의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는 우리의 이야기이자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삶공동체

30plus는 예배 후에 주일 겨자씨모임(소그룹)이 진행됩니다. 한 주간동안 말씀을 통해 개인의 신앙 훈련을 했다면 주일에는 겨자씨 모임에서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됩니다.

기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등 각자의 일상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임 가운데서 나눔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30대의 어우러짐 겨자씨모임은 3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의 싱글(미혼)과 커플(기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싱글, 신

혼부부, 자녀를 둔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겨자씨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눔공동체

30plus의 모든 사역은 ‘나눔’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사역의 현장에서 은사로 나누며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의 즐겁고 행복한 일,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눕니다. 생일, 결혼식, 출산, 백일, 돌잔치, 장례, 병문안 등 삶 가운데서 함께 웃고 함께 울게 되는 모든 일 가운데서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는 30plus가 함께 할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 지금 30plus에서 시작하세요!



문의 : 권대선 목사 (010-4900-1931)

고윤석 목사 (010-2723-5783)